

1월의 기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장 9절)



1. 2015년 한해 동안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2015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2015년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DCEM 성회안내

2015년 2월 3일, 4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Word of God in Revival and Divine Healing"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이, 김양호, 김정환, 박우택(원로장로),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신한림, 안희순, 원소원, 이규현, 이준호, 이형춘, 임철규, 정경자, 최인철, 한선희, 함석숙, 010-2726-****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내가 억울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을 때

2010년에 '올해의 부부상'을 받은 이상택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상은 전적으로 아내 황영희 씨의 헌신과 인내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두 분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째, 시부모님과 식구들을 모시고 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아들 부부의 신앙을 미워하며 더구나 예수 믿는 며느리를 무척 미워했었습니다. 황영희 씨는 8명이나 되는 식구를 봉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영희 씨는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에게조차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시댁 식구들을 섬겼습니다. 그녀의 인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하던 그 시어머님이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며느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전도하고 섬겨준 것을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내의 신앙으로 온 가족을 전도한 두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그 꿈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감사하니 결국에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 마음이 미움과 원한으로 채워지면 더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빨리 십자가 밑에서 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고 꿈꾸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 보는 2014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해외성회



지난 2014년 한 해에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해외성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2014년은 4월 대만 타이퉁 성회로 시작되었다. 타이퉁교역자연합회가 주최하고 DCEM 주관, 가오슝 화롄 타이난 교역자연합회가 후원한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 동부연합 부흥대성회와 교역자세미나가 4월 3~4일 타이퉁 실내체육관과 타이퉁현예술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타이퉁 고문의 자격으로 성회를 준비한 정빠련 목사(가오슝 우창교회)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가 타이퉁을 영적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대만 남부와 동부, 남동부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에는 2014 도쿄대성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 도쿄 지저스 페스티벌을 부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는 '회복'을 주제로 히비야 공회당에서 일본 전역 90여 개의 교회에서 2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막이 올랐다. 5월 6일 개최되었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도쿄대성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계속되어가는 고통 속에서 일본인들의 심령회복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도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정치적 긴장으로 악화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

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성회였다.

6월에는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위치한 생명의 말씀교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조용기 목사 초청 성령콘퍼런스'가 4~5일 교회 본당과 다른 장소 3곳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이틀간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석한 성령 콘퍼런스는 아르메니아 최대교회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은 물론 주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아르메니아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한 기적의 성회로 기록됐다. 조용기 목사의 아르메니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생명의 말씀교회 아르투스 시모난 목사가 몇 년간 꿈꾸며 기도하다가 이뤄진 뜻 깊은 성회였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가던 9월 오사카순복음교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하여 조용기 목사 초청 '오사카순복음교회 축복대성회'가 열렸다. 조용기 목사는 일본 일천만구령 운동을 통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더 큰 결실이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바로 9월 25, 26일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러시아 지도자 4차원 영성 콘퍼런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공원에서 열렸다. 블라디보스토크 오순절협의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하여 '주여 러시아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성회가 열렸다. 러시아 전역에서 목회자와 리더 3000여 명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 대성회가 11월 19일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슈핏패밀리 미니스트리가 주최하고 DCEM 주관한 이번 성회는 '인도네시아여 하나님여 일어나라'를 부제로 최다 모슬렘 국가의 심장인 자카르타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될 수 있었다. 세계 최다 모슬렘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대성회는 한국을 넘어 인도네시아에 붙은 성령의 불이 아시아와 세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했다. 2015년에도 계속해서 2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성회를 시작으로, 4월 대만성회, 5월 우크라이나, 6월 독일성회를 비롯하여 10월 CGI 성회까지 많은 성회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모든 성회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한 영혼구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중략)…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시편 139편 2~4절>

들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므로 우리가 빛을 찾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를 비취 주십니다.

2. 예수님의 빛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 없이 세상 습관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죄와 허물, 질병과 고통, 저주와 궁핍,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어두움의 임금이요, 모든 고통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두움의 세력이니 어두움이 떠나가면 마귀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 그 앞에 어두움인 마귀가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빛이 어두움을 멸해버리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비치면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생명의 빛이 우리의 가슴속에 비취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신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삶의 갈 길을 밝히 비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

스도께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악한 자의 꾀에 빠지게 만듭니다. 악한 자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도 않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광명한 빛을 비취주십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4.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 마귀가 쫓겨 나가고, 죄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성령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그 하늘나라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 앞에 늘 나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쫓겨나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조용기 목사 (DCEM 총재)

1. 2015년 새해를 맞아 성도들에게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오면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놓치면 여태까지 발전한 것까지 놓쳐버리게 됩니다. 국민 전체가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희망은 사람의 거짓된 약속에 있는 희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들어오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2. 목사님께서 2015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성경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온 천하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나의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3.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꿈을 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4차원의 영성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성도들이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정부가 잘못한다. 정치인이 잘못한다. 나라가 희망이 없다. 경제가 시련 속에 빠졌다” 등 온갖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치인과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잘된다. 희망이 있다.” 잘 되고,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크고 작은 꿈을 넘치게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믿음의 시인으로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하고 창조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꿈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4.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2015년의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계, 그리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한국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에 세월호가 큰 불행으로 다가왔을 때 교회가 나서 주도적으로 해결했어야 했지만,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사회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새해에는

한국 교회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서 한 힘을 가지고 국가를 밀어주거나 질타하거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서로 갈라져 있는데 빨리 하나로 합쳐 성령운동이 전세계에 불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교회는 세계 최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오만하거나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도취해 있지 말고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5. 목사님께서 올해 이루시기 바라는 계획과 목표를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꿈과 계획은 오직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녔던 선교지를 돌며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려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게 나의 꿈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외침이고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6.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보고 믿고 말하고 이 세가지를 충실히 행하면 어떠한 역경에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신년사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지나가고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되돌아 볼 때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얽매어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2015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행운을 찾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면 2015년은 행복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마치 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워트 비치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했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20세기의 신화’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때는 황금만능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돈 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큰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높은, 소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유명인사이고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인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해 보니, 한 명은 미쳤고 세 명은 파산해서 빛에 쫓겨 도피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며, 두 명은 출옥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으며, 세 명은 자살했습니다.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애의 기로 어디에선가 예수님께로 오라는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

거나 허무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성자로 불렸고 인도인의 태양과도 같았던 간디도 죽기 전에 자신은 괴로운 사람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리가 되었든 구두담이가 되었든 지간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줄 압니다. 뜻대가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4)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목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